

양록사업단, 사업재개 선언

- 제2기 출자자회의 개최, 임원진 대폭 물갈이 -

(주)한국양록사업단이 신임 대표이사에 정원영씨를 선임하고 새출발을 결의했다.

양록사업단 출자자 25명은 지난 12월 22일 유성유스호스텔에서 제 2차 출자자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재개를 결의하는 한편 사업단 제 2기 임원진을 출범시켰다.

출자자 회의 전까지 사업단 임원은 전원 사퇴로 인해 결원상태였으며 장기간의 사업 중단으로 사업재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날 출자자 회의에 참석한 출자자들은 사업단의 잔여 자산 분배를 통한 청산과 사업재개의 여부를 놓고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사업재개를 결의했으며 사업단을 이끌어갈 신임 이사진을 새로 선임했다.

특히 출자자들은 제 1대 이사진이 11명에 달해 사업 진행시 신속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2기 이사진을 4명으로 축소,

발빠른 사업 진행에 역점을 뒀다.

새로이 선임된 이사진은 각각 정원영, 이창호, 황희록, 김수근씨이며 이 중 정원영씨가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날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정원영 이사는 “정관과 규정 등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단을 운영해 나갈 것이며 이익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고 “사업단은 개인회사가 아닌 주주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우리 모두의 회사”라며 출자자들의 주인 의식을 강조했다.

신임 감사로는 역대 사업단 단장이었던 이재화씨가 선임됐다.

출자자들은 “역대 사업단을 운영해왔던 단장이 사업단 운영관계에 밝은만큼 보다 확실하고 원활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역대 사업단 단장을 신임 감사로 추대했다.

제 2기 집행부 선임 후에는 양록사업단 활성화 방안을 위한 출자자들의 자유토론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출자자들은 “사업단이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녹용 수매사업”이라 말하고 “개인 수매자들의 수매 가격이 천차만별인 만큼 사업단이 적정 수준의 가격에서 수매를 실시, 흐트러진 녹용 유통 시장을 바로잡는 기구로 자리매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수매된 녹용도 생녹용 상태로 유통시키는 것에는 한



계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규격화 제품인 ‘국선용(진공 동결 건조 녹용)’의 생산 및 판매에 역점을 두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본회 김수근 회장은 “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지금까지 협회를 통해 녹용 수매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몇몇 녹용 공급 업체 및 ABS농어민방송 녹용 납품 사업권 등을 사업단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사업단은 현재 각종 기자재 구입 및 기타 사업 비용 투자로 자본이 잠식된 상태임에 따라 신규 출자자를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신규 출자는 현금 출자이며 1인의 출자액은 최소 1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이다.

사업단은 향후 제 1기 집행부로부터 인수인계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을 재정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양륙**

잠깐 인터뷰

사업단 제2대 대표이사 정원영

Q : 취임 소감은?

A :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원리 원칙에 입각하여 투명한 운영을 시행하겠다.

Q : 사업 계획은?

A : 사업단이 1년여간 사업이 정체되어 우선 사업 시행을 위한 내부 정비부터 실시하겠다. 또한 현재까지 사업 기자재 구입 및 여타 지출 등으로 사업 자금력이 약한 상태임에 따라 신규 출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규 출자금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이사진들과 의논해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주주들의 이윤을 우선으로 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Q : 출자자들의 관심은 녹용 수매 여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A : 물론 녹용 수매도 실시할 것이다. 구체적인 수매가격과 물량은 아직 미정이다. 녹용 수매도 우선 확실한 납품처부터 확보한 후 실시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수매로 인한 재고부담을 떠안고 있지 않을 것이다. 자금 회전이 빨라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Q : 하고싶은 말?

A : 사업단의 최우선 운영방침은 주주들의 이윤창출이지만 이를 통한 양륙산업 발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사업단 주주 및 양륙인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